허공의 꽃을 잡으려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㊴ 공화(空花)

"여러분! 참된 부처님은 모양이 없고 참된 법도 모양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다만 허깨비를 두고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 설사 그렇게 해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들여우나 도깨비 같은 것일 뿐이니라. 참된 부처가 아니고 외도의 견해니라. 무릇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도 취하지 아니하며, 보살이나 나한도 취하지 아니 하며, 삼계의 뛰어난 경지도 취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멀리 모든 것을 벗어나 사물에 구속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의심치 않으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한 생각 기뻐할 것 없고, 삼도[三塗 · 화도(火塗), 혈도(血塗), 고도(刀塗)] 지옥이 갑자기 나타나도 한 생각 두려움이 없어야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내가 보건대 모든 법이 공한 모습(空相)이라서 변하여 나타나면 있고, 변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없어지니 삼계(三界)는 마음뿐이요, 만법은 오직 식(識)일 뿐이니 그러므로 꿈과 허깨비 같은 공화(空花)를 어째서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선(禪)의 종지(宗旨)라 할 수 있는 '마음이 부처(卽心卽佛)' 라는 말은 바깥 경계를 따라 다니지 말고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은 밖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 중생의 처지다. 임제는 이 점을 다시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참된 부처와 법은 모양이 없다고 하면서 모양 없는 것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하고 되묻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 허상을 따라 움직일 때 부처는 이미 나와는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경계에 마음을 빼앗길 때 자기 부처는 실종됨을 상기시킨다.

'단하소불(丹霞燒佛)' 이라는 공안(公案)이 있다. 단하 천연(丹霞 天然 · 739~824)의 일화에서 나온 공안이다. 단하도 과거(科擧)를 보러 가다가 출가했다 한다. 그 후 마조(馬祖) 문하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법당에 들어가 불상의 목에 걸터앉았다. 이를 본 대중들이 크게 놀라 마조에게 일러주자 마조가 보고 "참으로 천연스럽구나"고 했다. 단하가 내려와 마조에게 절을 하고 "제게 좋은 호(號)를 주어 감사합니다" 했다. 이로 인해 천연이란 법호를 쓰게 되었다 한다.

오등회원(五燈會元)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단하가 낙양 혜림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추운 어느 날, 장작이 없어 법당 목불(木佛)을 쪼개서 불을 땠다. 이를 본 원주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불상을 아궁이에 넣어 태우지 않소?" 단하가 주장자로 재를 헤치면서 능청스럽게 말했다.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 하오" 원주가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와요?" 단하가 "사리가 안 나온다면 법당에 남아 있는 두 불상도 태워도 되겠소?"

이런 대화 끝에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빠져버렸다 한다. 〈선문연송설화〉에는 이 이야기를 두고 목불을 태웠다는 것은 뛰어난 안목에서 나온 것이고, 원주가 어째서 목불을 태우냐고 꾸짖어 눈썹과 수염이 빠진 것은 대반야의 도리를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문답도 있다.

"단하가 목불을 태웠는데 어째서 원주가 눈썹과 수염이 빠졌습니까?"

"진짜 도둑은 가난한 집은 털지 않느니라."

임제는 부처가 나타나도 기뻐할 게 없고 지옥이 나타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였다. 부처도 허깨비 지옥도 허깨비라 모두가 공(空)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다.

눈병 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허공의 꽃(空花)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하였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란 말은 〈능가경〉, 〈화엄경〉 그리고 기신론에도 설해져 있는 말이다. 〈임간록〉에 원효가 촉루수(髑髏水)를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를 깨닫고 내뱉은 독백의 말이 "마음이 생기니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법이 없어지는 것,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도 오직 식(識)일 뿐이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無我智 얻으면 곧 해탈



세상 속 경전읽기

㊴ 아법이공(我法二空)

어린이에게 막대기 다섯 개를 주고 오각형을 만들라고 하면, 막대기들의 끝과 끝이 서로 맞닿도록 고리를 만들고 오각형이라고 한다. 이 중 막대기 하나를 떼내어 "이 막대기가 오각형이냐?"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머지 막대기 네 개의 모양이 오각형이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한다. 막대기도 없느냐고 물으면 "막대기는 있다"고 한다.

범부는 오온(五蘊)이 일정 조건으로 모인 것을 나(我)라고 한다. 오온에서 색[色, 몸]을 떼 내어 "색이 나인가?" 물으면 "나가 아니"라고 한다. 수상행식[受想行識, 감수 · 표상 · 의지 · 인식 작용]도 마찬가지로, 떼낸 각각은 나가 아니다. 오온 중 어느 하나를 떼낸 나머지 네 가지도 나가 아니다. 이것이 〈무아상경〉의 골간(骨幹)으로, 인간은 오온의 일시적 화합[因緣所生]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아체[我體, 불변하는 자아(自我)라는 실체]' 가 없다는 것이 아공[我空, 生空' 人無我' 衆生無我]이다. 곧 상일주재(常一主宰)의 나(我)가 없다. 그러나 오온 각각, 나아가 제법[諸法 · 일체의 사물과 현상]은 있다. 나는 없는데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제법은 있다고 하는 것이 아공법유(我空法有)이고, 이것이 설일체유부 등 소승의 견해이다. 당(唐)의 종밀(宗密)이 지은 〈원인론(原人論)〉에서 소승교(小乘敎)의 아공(법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형체를 가진 몸[色]과 생각을 하는 마음[受想行識]은 본래 인연의 힘에 의한 까닭에, 생각생각 생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마치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 등불이 타오르듯 한다.

(이와같이) '몸과 마음[五蘊]' 은 임시로 합해 마치 항상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범부는 어리석어 (몸과 마음이 인연의 가화합임을) 알지 못하고, 집착하여 '나' 라고 여기고 이 나를 보배로이 여긴다.

따라서 탐[貪 · 명예와 이득으로 나를 왕성하게 함] 진[瞋 · 거슬리는 상황에서 나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으르는 것] 치[癡 · 이치에 맞지 않는 헤아림] 등의 삼독심을 일으키고 삼독심이 행동과 말을 발동시켜 일체의 업(業)을 짓는다."

〈原人論 T1886_.45.0709a11-a15〉

6조 혜능과 동시대를 살았던 의정(義淨 · 635년~713년)은 671년에 광주(廣州)에서 바닷길로 인도에 가 25년 동안 순례하며 대소승을 배운 후, 많은 산스크리트본 경론을 가지고 695년에 귀국하여 56종 230권을 한역하였다. 이 중 〈무아상경〉에 해당하는 내용 번역의 경제(經題)를 〈오온개공경(五蘊皆空經) T102〉이라 하였다.

〈오온개공경〉의 '오온개공' 은 '오온 각각은 나가 아니다. (그러나 오온 각각은 있다)' 라는 것으로 아공법유의 뜻이고, 〈반야심경〉의 '오온개공' 은 '오온 각각도 공하다' 는 것으로 법공[法空, 法無我]까지 말해 아공법공(我空法空) 곧 아법이공(我法二空)의 뜻이다. 예들 들어 〈반야심경〉에서 '색이 곧 공이다[色卽是空]' 를 부연하자면, 색은 5근[五根, 眼耳鼻舌身]과 5경[五境, 色聲香味觸]과 무표(無表)색의 11 요소로 구성된 것이니, 상일주재의 색체[色體, 색의 아체(我體), 색 자체] 곧 색성[色性, 색의 성품]이 없어서 공하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 등 오온, 나아가서 모든 현상(諸法)은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제법의 아체)가 없다는 법공(法空)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인도의 학승 하리발마가 지었고 구마라집이 한역한 〈성실론(成實論)〉에 '법무아' 에 대한 기술이 있다.

"법을 보지 않는 것을 무아라 한다. 또 경에 설하기를, '무아지(無我智)를 얻으면 곧 바른 해탈이다. 그러므로 색의 성품[色性]이 멸했고 수상행식의 성품[受想行識性]이 멸한 것이 무아로, 무아는 곧 ' 자성(自性) 없음[無性] ' 이다."

〈成實論 T1646_.32.0333a04-a07〉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25

일상 모두가 수행

지금까지 붓다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개발된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행체계를 살펴보았다. 오늘날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정에 맞는 수행법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각자의 성향이 다른 만큼 그에 어울리는 여러 수행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붓다 역시 대기설법(對機說法), 즉 대중들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는가. 수행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여 신행의 기초로 삼으면 되는 일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문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련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순간순간을 수행의 도량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옛 선사들은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모두 선(禪)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디를 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혹은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mindful)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계에 먹혀서 수행은커녕 정신없는(mindless) 중생의 삶이 계속될 뿐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 몸(身)과 입(口), 생각(意)으로 지은 행위의 결과물이다. 흔히 업(業)이라 불리는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과거의 반복된 행위가 무의식에 쌓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업의 관성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술이나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대상에 먹히면서 살아온 과거의 업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수행이다. 특히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해서 훈련하는 것이 좋다. 매일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1주일에 특정 요일을 정해서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수행의 주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다보면 수행으로 쌓인 에너지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수행이 깊어지면 일상의 순간순간을 공부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목욕 또한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그 순간 욕실은 단순히 몸에 쌓인 때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惡業)을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발원하는 거룩한 도량이 된다. 이른바 목욕 명상이 탄생하는 것이다.

운전도 수행이라 생각하면 훨씬 평온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마음이 분주하면 운전 또한 불안하며, 평온한 마음일 때 안전한 운행이 뒤따르는 법이다.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Thich Nhat Hanh)은 운전하면서 만나는 빨간 신호등을 부처님으로 여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빨간 불은 단순히 자동차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빨리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빨간 신호등은 나의 주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로 다가온다. 비록 잠깐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신호가 바뀔 때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한다면, 자동차 안은 거룩한 수행의 도량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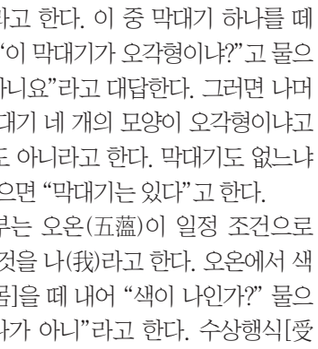
일상을 수행이라 생각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도 이를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먹히면 화를 나게 한 대상을 탓하면서 짜증만 낼 뿐이다. 마치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화재의 원인만 탓하는 것과 같다. 그 순간 나 자신은 화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수행이라 생각하면 삶의 방향은 붓다를 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상과 경계에 먹혀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왜 불교를 공부하는지 조용히 성찰할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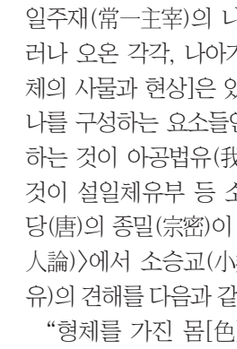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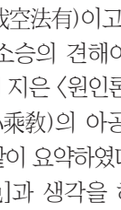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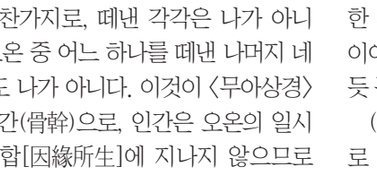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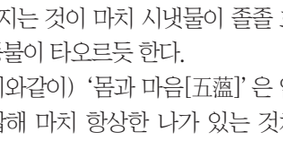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7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 개강일시 : 2020년 10월29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2. 바라무 및 착복무
  3. 수륙대 의식 (매주 월요일 참석가능)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강 사 : 원명 (철학박사 – 불교의례전공)
- 문의전화 : 010-3867 – 8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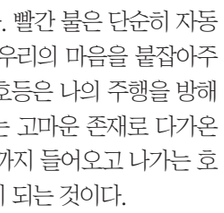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불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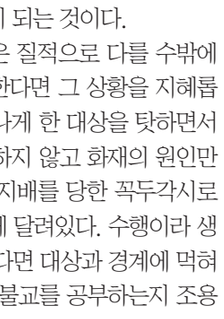
원장 원 명 합장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